

티오즈, 중국과 광촉매 2000톤 합작!

China Blue Star와 50대50으로 ... 총 400억달러 투자 Beijing 현지생산

티오즈는 2003년 7월 China Blue Star Group과 중국 Beijing에 광촉매(Photo-catalyst) 50대50 합작기업을 설립키로 계약을 체결했다.

2개 기업은 총 400억달러를 투자해 광촉매 2000톤을 생산하게 되며, Tioz가 30년 동안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.

광촉매는 태양광을 이용해 오염물질,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등을 없애주는 신소재로 주로 공기정화, 탈취제 및 항균제로 사용된다. 특히, 건축 외장용 코팅에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오염을 막아준다.

티오즈는 2003년 1월 LG 전자에서 분사한 환경분야 신소재 전문기업으로 LG 그룹 및 현대 그룹에 광촉매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26>